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와 사영분야 정책:

육성과 영도의 공존*

윤태희**

| 목 차 |

I. 서론	III. 20기3중전회에서 나타난 사영분야 영도 강화
II. 20기3중전회에서 나타난 사영분야 육성 방침	IV. 결론

| 논문요약 |

개혁기 주요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문은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사영분야 관련 방침들을 분석하여 이하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적 흐름은 중국 공산당이 향후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재천명과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보호, 사영분야 발전에 양호한 환경의 조성과 기회제공을 천명하였으며,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영역의 사영분야에 더 많은 활동의 여지를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둘째, 20기3중전회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사상적 영도가 강조되었고, 정부-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도의 지속이 시사되는 한편, 사영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의 강조 속에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내포되는 등 당국가의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영도의 방침 또한 명시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이처럼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영도의 공존이 20기3중전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육성과 영도 중 당국의 정책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이 될 것인가,

* 본 연구는 2024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2024-A000-0356).

** 상명대학교 중국어권지역학전공 조교수

그리고 향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 전개될 것인가 등은 추후 귀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기3중전회를 통해 나타난 사영분야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시진핑 시기 중국 사영분야의 발전 추이에 대한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중국, 중국 공산당, 20기3중전회, 사영분야,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I. 서론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國共產黨第二十屆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 이하 20기3중전회(二十屆三中全會))가 개최되었다. 20기3중전회는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 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進一步全面深化改革、推進中國式現代化的決定, 이하 결정)>을 통과하였는데,¹⁾ <결정>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실현의 목표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80주년인 향후 5년간의 주요 개혁 조치를 15개 부분, 60개 항목에 걸쳐 제시하였다.²⁾

개혁기 주요 3중전회(三中全會)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국가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역대 3중전회가 연구하는 의제, 제시되는 결정, 채택하는 조치, 발산하는 신호는 새로운 중앙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업무 중점을 판단하는 중요 의거가 되며, 향후 5-10년의 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발언하여 3중전회가 중국의 발전과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鄭吉偉 2024).³⁾ 이러한 맥락에서, 개혁기 주요 3중전회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1)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2)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7/content_6963773.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3) 求是网, http://www.qstheory.cn/dukan/2020-06/04/c_1126073313.htm. (2024년 6월 26일 검색). 그 중에서도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新时期(新時期)의 시작을 알린 11기3중전회(十一屆三中全會)와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및

제시되었다.⁴⁾

한편으로, 개혁기 주요 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은 중국의 사영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⁵⁾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영분야는 ‘56789’의 특징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2018년 민영기업 좌담회(民營企業座談

체계적인 전체 설계를 통한 개혁 추진의 신시대(新時代)를 개척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18기3중전회(十八屆三中全會)는 시대를 구별짓는(劃時代的) 회의로 풀이된다(沈傳亮 2019; 戴焰軍 2019; 장운미 2020).

- 4) 예를 들어, 개혁기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 교체기 3중전회의 의의와 성격을 고찰한 연구가 제시되는 한편(최경식 2015), 1978년 11기3중전회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의의와 모호성의 문제(안치영 2008), 2008년 17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농촌개혁과 삼농문제(박광득 2008; 이종화 2009), 2013년 18기3중전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금융개혁(이연단 2014), 전면심화개혁 방침에서 제시된 시장의 결정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제한요인(여유경 2014),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서석홍 2014) 등 다양한 연구들이 개혁기 주요 3중전회를 둘러싸고 수행되었다.
- 5) 예를 들어,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는 ‘인민공사 사원의 자류지(自留地), 가정 부업과 자유시장 거래(集市貿易)는 사회주의 경제의 필요한 보충 요소’임을 명시하여 농촌에서 개체경제(个体經濟)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돌파구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며(石云鳴·姚桓 2024), 1984년 10월 12기3중전회(十二屆三中全會)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은 다양한 소유제 형식과 경영방식의 적극 발전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高尚全 2013). 또한, 1993년 11월 14기3중전회(十四屆三中全會)에서 통과된 <중공 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은 개체(个体), 사영(私營), 대외무역경제(外貿經濟)의 발전 격려 및 법에 의거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고(郭朝先 2008), 국가의 각종 소유제 경제의 평등한 시장경제 참여를 위한 조건 창조 및 각종 유형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一視同仁)를 명시하였다(徐亞娜 2010; 熊輝 外 2013). 그 외에도 2003년 10월 16기3중전회(十六屆三中全會)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의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은 개체, 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가 중국 사회 생산력 발전의 중요 역량을 천명하는 한편(陳陽 2009),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사영분야 발전 촉진에 유리한 현대 재산권 제도 수립을 강조하였다(張厚義·劉平青 2003; 王拴乾 2003). 더 나아가, 2013년 11월의 18기3중전회는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요소(重要組成部分)이며, 모두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기초(重要基礎)임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董珊珊 2014; 鄭默杰 2013), 권리평등(權利平等), 기회평등(機會平等), 규칙평등(規則平等)의 견지와 사영분야에 대한 각종 형식의 불합리한 규정 철폐, 각종 음성적 장벽의 해소 등이 제시되어 사영분야 발전의 공평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강조하였다(祝遠娟 2014; 李連仲 2014; 周戎 外 2022). 이처럼 개혁기 주요 3중전회에서는 사영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會)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사영분야가 50% 이상의 세수,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 90% 이상의 기업 수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사영분야가 '56789'의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였던 것이다(윤태희 2023b).⁶⁾ 중국의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래 사영분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사영분야의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王天義 2020; 李國強·李初 2021), 특히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영도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郭倫德 2023). 구체적으로 중국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당국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兩個毫不動搖)'에 대한 강조 속에서 사영분야에 관한 흔들림 없는 격려, 지지, 인도를 천명하였고(楊靜 2024; 王松 2024), '두 가지 건강(兩個健康)'의 맥락 속에서 사영기업가들과 사영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陸聶海 2020; 隗斌賢 2019; 王煥培 2019), 사영분야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를 강조하였다(魏倩 2023; 王昆 2023; 陳曉莉·翟丰 2022). 그 외에도,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당 조직 건설(楊婷婷 外 2020; 王懂棋·范雅康 2020), 사영분야를 위한 다양한 경영환경 개선의 노력 등 사영분야에 대한 일련의 영도가 시진핑 시기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胡稅根 外 2020; 彭藝璇 2024). 최근 중국의 사영분야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신진세력(生力軍)이자, 고품질 발전의 중요 기초로 강조되었고(羅永寬·楊嬌 2023; 高姣萍 2024), 당국이 강조하는 신품질 생산력의 중요한 역량으로 기대되었다(程名望·常臻 2024; 周文·李雪艷 2024).

반면, 중국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가의 영향력 확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한다(Naughton &

6)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01/c_1123649488.htm. (2024년 9월 3일 검색). 한편으로, 2024년 6월 <국무원의 민영경제 발전 촉진 상황에 관한 보고(國務院關於促進民營經濟發展情況的報告)>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민영기업은 전국 기업 전체의 79.4%에서 92.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여 5,300만여 개에 달하게 되었으며,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역시 4,000만 개에서 1억 2,400만 개 정도로 양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가 첨단 과학기술 기업 중 민영기업의 비중은 62.4%에서 90.9%에 달할 정도로 상승하였고, 관련 기업 수 역시 28,000여 개에서 359,000여 개로 증가되어 혁신 수준의 제고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 역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1.1% 증가하여 전국 수출 총액에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여 중국 최대의 대외 무역 경영 주체로 발돋움하였다. 中國人大網, http://www.npc.gov.cn/c2/c30834/202406/t20240627_437798.html. (2024년 7월 25일 검색)

Boland 2023; Grünberg 2021; Pearson et al. 2024).⁷⁾ 이에 따르면, 국유자본을 통한 당국가의 사영분야 침투와 영향력 확대 및 소유권 경계의 모호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Milhaupt & Zheng 2015; Blanchette 2020), 국유분야의 약진은 사영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준 것으로 이해되었다(윤태희 2023b). 또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 노력 외에도 정치적 영도가 중시되었는데(Hou 2022; 윤태희 2021b), 사영분야에 대한 당조직 건설과 통일전선의 맥락 속에서의 사상적 통제를 통한 사영분야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추진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Dotson 2020; Livingston 2021). 더 나아가 2021년 공동부유가 재차 강조되는 맥락에서 인터넷 플랫폼 영역, 부동산 영역, 사교육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영기업들은 난관을 경험하였으며(Bradford 2023; Guiheux 2024; 윤태희 2022; 윤태희 2023a; 윤태희 2023c), 20차 당대회 이후 당국의 적극적 육성의 시도 속에서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윤태희 2024). 다만 해당 선행연구들은 최근 진행된 20기3중전회의의 사영분야 관련 정책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를 제시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7) Mueller, J., J. Wen and C. Wu (2023), “The Party and the Firm”, https://www.hbs.edu/ris/Publication%20Files/2023.12.06.%20The_Party_and_the_Firm_5d1d06fd-dcb6-44e5-8edb-4db24d7186c8.pdf. (2024년 9월 1일 검색)

8) 본문에서는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관련 정책은 비공유제 경제 및 민영경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밝힌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11조는 법률 규정 범위 내에 있는 개체경제(个体經濟)와 사영경제(私營經濟) 등의 비공유제 경제(非公有制經濟)를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 구성요소로 명시하였다(윤태희 2021b). 개체경제는 노동자 개인이 생산수단을 점유한 것을 바탕으로, 개체노동(个体勞動)과 개체경영(个体經營)에 종사하는 사유제 경제로(陳春花·尹俊 2021; 王靚 外 2007), 개인이나 가족이 8인(혹은 미만의 소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기도 하여) 소규모로 각종의 공·상업,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기업(개체기업 또는 개체공상호)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주를 지칭하며(서석홍 1993), 사영경제는 생산수단의 개인(私人) 소유와 고용·노동 관계의 존재, 생산경영 성과의 생산수단 소유자 지배 및 잉여가치 혹은 이윤 추구 등의 특징을 가진 경제 요소로(毛三元 1995; 吳振坤 1999),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경제조직인 사영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범주 또는 경제 부문을 지칭한다(서석홍 1993).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모두 생산 수단의 개인 지배적인 영리성 경제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敖帶芽 2005). 한편으로, 개혁기 민영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程霖·劉凝霜 2017), 명확하고 권위있고 합의된 정의 또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었다(윤태희 2024). 그러나 최근 2024년 10월 공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

본문은 이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20기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여 이하와 같은 질문들을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20기3중전회에 나타난 사영분야 주요 방침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둘째, 사영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침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사영분야의 영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침들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끝으로, 이를 통해서 볼 때, 20기3중전회를 통해 제시된 사영분야 관련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를 통해 본문은 이하의 내용을 주장한다. 첫째, 20기3중전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재천명과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강조하였으며, 사영분야 발전에 양호한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을 언명하는 한편,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사영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편으로 당국의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영도의 방침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영분야에 대한 정치사상적 영도의 맥락이 내포되는 ‘두 가지 건강’과 기업가정신의 발양이 명시되었고,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가 강조되어 정부와 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국의 영도가 지속됨을 시사하였으며, 사영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내포되는 등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영도가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처럼 20기3중전회를 통해 나타난 사영분야 관련 정책은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과 영도의 강조라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육성과 영도 중 향후 어느 방향이 더욱 중시될 것인가, 그리고 20기3중전회에서

의견 청취고)(中華人民共和國民營經濟促進法(草案徵求意見稿))에서 민영경제조직(民營經濟組織)은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중국 공민이 지배하거나(控股),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영리법인, 비법인 조직과 개체공상호 및 상술한 조직이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영리법인, 비법인 조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王俊(2021), 趙文強(2021) 등에 따르면 협의(狹義)의 민영경제(民營經濟)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를 지칭하고, 광의(廣義)의 민영경제는 국유 및 국유 지분 우위 기업(國有控股企業)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 (2024년 9월 3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https://www.moj.gov.cn/pub/sfbgw/lfyjzj/1lfyjzj/202410/t20241010_507325.html. (2024년 11월 7일 검색)

나타난 방침들이 추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전개될 것인가 등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Ⅱ. 20기3중전회에서 나타난 사영분야 육성 방침

20기3중전회를 통해 당국은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의 기조 유지와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합법적 권익의 강조, 사영분야의 발전에 양호한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의 강조 속에서 관련 영역의 사영분야에 대한 중요성 시사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20기3중전회를 통해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의 방침이 다시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제5항에서 ‘흔들림 없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의 격려, 지지, 인도’를 명시하여 기존 사영분야에 유지되던 방침에 대한 되풀이를 통해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의 방침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⁹⁾ 또한, 해당 항목에서 제시된 ‘각종 소유제 경제에 대한 법에 의거한 평등한 생산요소의 사용, 공평한 시장 경쟁의 참여, 동등한 법률 보호’의 방침 역시 기존 18차 당대회에서 강조된 내용으로(윤태희 2024),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9) 2002년 16차 당대회는 ‘흔들림 없는 공유제 경제의 공고와 발전’과 ‘흔들림 없는 비공유제 발전의 격려, 지지, 인도’라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이 최초로 제시하였다(張雷聲 2022; 郭強 2022). 또한, 16차 당대회는 ‘공유제 주체 견지와 비공유제 경제 발전 촉진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 중에 통일시킨다’고 명시하여 공유제와 비공유제 경제가 성질상 다른 측면이 있더라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모두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보완, 상호촉진, 공동발전이 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하였다(張雷聲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은 공유제와 사유제 간의 이원적 대립 문제를 해소하고, 기본경제 제도의 측면에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周戎 外 2022). 시진핑 시기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중시의 맥락 속에 사영분야의 발전 또한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19차 당대회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와 발전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였으며(윤태희 2024), 20차 당대회에서도 ‘흔들림 없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의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이 되풀이 되는 등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의 맥락 속에서 사영분야에 대한 격려, 지지, 인도는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 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 https://www.acfic.org.cn/fgzs/ljih/202403/t20240319_200520.html. (2024년 8월 24일 검색)

대우의 방침이 지속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이 시진핑 시기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성을 가질 것임이 재천명된 것이다.

한편으로, 시장경제 기초 제도 완비 방침 속에서 재산권 및 합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결정>에서는 법에 의거한 평등한 각종 소유제 경제의 평등한 재산권 보호가 천명되는 한편, 각종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과 합법적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동등한 책임과 처벌이 명시되었으며, 재산권의 집법과 사법 보호 강화와 행정 및 형사수단을 통한 경제 분쟁 개입 방지, 기업가의 억울한 판결에 대한 법에 의거한 선별 및 교정 기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20차 당대회와 2023년 7월의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민영경제 발전 장대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促進民營經濟發展壯大的意見)>에서 제시된 ‘법에 의거한 사영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 보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맥락으로 판단된다.¹⁰⁾ 요컨대, 20기3중전회는 과거부터 유지된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의 기초 하에서 사영분야에 대한 격려, 지지, 인도의 방침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가 강조되었으며, 20차 당대회를 통해 강조된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의 방침이 되풀이되어 이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영분야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및 더 많은 기회 제공의 방침과 정책 견지가 제시되었다. 이는 시진핑 시기 지속적으로 강조된 민영기업 발전 환경 개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¹¹⁾ 먼저, 민영경제촉진법

10)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202307/content_689305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11) 예를 들어 당국은 2019년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더 나은 환경 조성 및 민영기업 개혁발전 지지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營造更好發展環境支持民營企業改革發展的意見)>을 발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이 공동으로 <민영기업 개혁발전과 전환 업그레이드 가속화 지지에 관한 시행 의견(關於支持民營企業加快改革發展與轉型升級的實施意見)>을 제시하는 한편, 2020년 1월부터 <경영환경 개선 조례(優化營商環境條例)>를 시행하였다(王欣 2022). 더 나아가, 20차 당대회는 ‘민영기업 발전환경 개선’을 언명하였고, 2023년 7월 <민영경제 발전 장대 촉진에 관한 의견>은 안정적이고, 평등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전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명시하였다(許英杰·袁東明 2024). 이처럼 시진핑 시기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당국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民營經濟促進法)의 제정이 예고되었다.¹²⁾ 이는 민영경제가 50% 이상의 세수,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 혁신, 80% 이상의 도시 노동 취업, 90% 이상의 기업 수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치 보장의 미비 문제로 인한 민영경제 관련 전문 법안의 필요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³⁾ 또한, 사영분야에 대한 개방 영역 확대의 방침이 제시되었다. <결정>은 인프라 관련 경쟁적 영역의 개방을 천명하는 한편, 민영기업의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참여 및 국가 주요 기술 관련 임무 참여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인프라 및 국가의 주요 사업에서 사영분야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결정>은 융자지원 정책 완비를 통한 사영분야의 융자난(融資難), 융자귀(融資貴) 현상 해소, 민영기업 신용 종합평가 체계의 수립과 중소 민영기업 신용 강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민영기업의 어려움 해소의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⁴⁾ 이처럼 <결정>은 사영분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더

12)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 의견 청취고)(中華人民共和國民營經濟促進法(草案征求意见稿))>가 공개되어 2024년 11월 8일까지 중국의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전개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https://www.moj.gov.cn/pub/sfbgw/lfyjzj/lflyfjzj/202410/t20241010_507325.html. (2024년 11월 7일 검색)

13) 21經濟網,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224/herald/5e3bd0d77682027880776a9ed01977fc.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14) 중국의 금융기관은 국유기업을 더 선호하였는데(袁莉 2024), 이는 국유기업이 궁극적으로 정부 소유이며 당국의 정책 달성에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낮다고 인식되지만, 사영기업은 국유기업 대비 규모가 작고 수출에 더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침체에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Bunny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중소 사영기업은 국유기업보다 금융기관의 더 엄격한 융자조건과 더 높은 융자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徐政 外 2024). 사영분야의 융자지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11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중화 전국공상업연합회(工商聯)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민영 경제 발전 장대 지원의 금융지지 조치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強化金融支持舉措助力民營經濟發展壯大的通知)>를 발표하여 금융기관의 사영분야에 대한 동등대우(一視同仁)와 사영분야의 경제사회 발전 공헌에 상응하는 금융의 사영분야 지지를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영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3월 민영경제 대출(民營經濟貸款) 잔액은 작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였고,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0.4% 상승하였다. 또한 포용적 소형기업 대출(普惠小微貸款) 잔액 20.3% 증가, 지원받은 소형기업의 수 7.5% 증가 등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中國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민영경제 전문 법안의 제정을 통한 사영분야 법치 보장 강화, 사영분야에 대한 개방 영역의 확대, 융자지원 개선을 통한 사영분야의 어려움 해소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이 재천명되었으며,¹⁵⁾ 지역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발전 체제 기제 개선이 강조되었다.¹⁶⁾ 이러한 고품질 발전 및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강조는 사영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7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민영경제 발전 장대 촉진에 관한 의견>은 민영기업을 중국식 현대화의 신진 세력(生力軍)이자 고품질 발전의 중요 기초(重要基礎)로 공인하였으며,¹⁷⁾ <의견>의 제16항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의 지지’ 항목은 주요 산업 민영 과학기술 선도 기업(領軍企業), 전정특신(專精特新) 중소기업,¹⁸⁾ 강한 혁신

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11/content_6917272.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中國人民銀行, <http://www.pbc.gov.cn/zhengcehuobisi/125207/125227/125957/5347949/5347944/2024051109091110942.pdf>. (2024년 7월 24일 검색)

15)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이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선언하였고,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고품질 발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윤태희 2024). 더 나아가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와 2024년 1월 중공중앙정치국 제11차 집체학습(中共中央政治局第十一次集体學習)에서 시진핑은 고품질 발전을 신시대의 확실한 도리(硬道理)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求是网, http://www.qstheory.cn/dukan/qst/2024-05/31/c_1130154174.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光明网, https://theory.gmw.cn/2024-02/29/content_37173611.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23/12/12/c1024-40137394.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29446.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16) 신품질 생산력은 2023년 9월 헤이룽장(黑龍江)성을 시찰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자원 통합, 전략성 신흥산업(戰略性新興產業)과 미래산업(未來產業) 발전 인도, 신품질 생산력의 신속한 형성’을 언급하면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이다(曾憲奎 2024; 程名望·常臻 2024; 윤태희 2024). 시진핑은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과파적 기술과 최첨단 기술을 통한 신산업, 신모델, 신동력의 촉진과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언급하여 신품질 생산력의 지위와 가치를 제시하였으며(保虎 2024), 2024년 3월 양회 기간 동안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강조하였다(윤태희 2024).

17)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202307/content_689305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18)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전문화(專業化), 정교화(精細化), 특색화(特色化), 참신화(新穎化)’의 특징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搜狐网, https://news.sohu.com/a/832877582_796223. (2024년 12월 5일 검색)

능력 보유 중소기업의 특성 산업 클러스터 육성, 민영기업의 기초적, 첨단적 연구와 성과 전환의 지지 등을 명시하여 사영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당국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¹⁹⁾

한편으로, 2024년 1월 중앙정치국 제11차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은 고품질 발전 추동의 내재적 요구와 중요한 착력점(着力点)임을 천명하였으며, 신품질 생산력의 특징으로 혁신을 강조하였다.²⁰⁾ 사영분야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중요 역량으로 평가되는데(周文·張奕涵 2024), 중국의 사영분야는 R&D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50% 이상, 기술 혁신 성과의 70% 이상,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의 80% 이상, 첨단기술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 주체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梁雅楠 外 2024). 이처럼 높은 잠재력과 창의력을 가진 시장주체로써 사영분야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 추동의 중요한 역량으로 이해되는데(江浩然 2023; 周文·何雨晴 2024), 2023년 3월 양회 기간 시진핑은 민주건국회와 공상련계 위원과의 만남에서 능력과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의 자주 혁신 강화와 과학 기술 자립 및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서의 더 큰 역할 수행을 언명하였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7월 20기3중전회의 <결정>에서 제시된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 강화의 방침은 해당 분야의 사영기업들에게 더 많은 활동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²²⁾

요컨대, 20기3중전회의 <결정>은 사영분야의 적극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재천명과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강조가 되풀이되어 당국의 사영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결정>을 통해

19) 中國社會科學網, https://www.cssn.cn/jjx/jjx_jjxp/202405/t20240514_5751063.s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20) 求是網, http://www.qstheory.cn/dukan/qs/2024-05/31/c_1130154174.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21) 新華網,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1129417096.htm. (2024년 8월 7일 검색).

22) 구체적으로 <결정>은 제14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 항목에서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 강화, 과학기술 선도 기업 육성의 기제 수립, 기업 주도의 산학연 융합 강화, 기업의 R&D 준비금 제도 건설, 국가 과학기술 핵심 임무에서 기업의 자발적 주도 또는 참여의 지지를 명시하는 한편, 전정특신 중소기업 발전 장대 촉진의 기제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영분야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의 조성과 기회 제공의 방침이 제시되어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영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이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셋째,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해당 영역에 중사하는 사영분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기3중전회의 <결정>은 사영분야의 적극적 육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Ⅲ. 20기3중전회에서 나타난 사영분야 영도 강화

그러나 이러한 육성의 방침은 당국의 사영기업가에 대한 적극적 영도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 시사되었다. 첫째, 정치사상적 맥락 속에서 사영기업가에 대한 정치적 영도가 강조되었다. 먼저, <결정>에서는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 촉진의 업무 기제 개선을 명시하여 사영분야에 대한 ‘두 가지 건강’이 지속됨이 강조되었다.²³⁾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2015년 중앙통전공작회의(中央統戰工作會議)에서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은 중요한 경제 문제이자 중요한 정치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²⁴⁾ 건강한 비공유제 경제 발전의 전제(前提)는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윤태희 2021b).²⁵⁾ 즉 ‘두 가지 건강’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23) ‘두 가지 건강’은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의 건강한 성장’을 의미하는데, 1996년 당시 중앙통전부 부장(中央統戰部部長) 왕자오궈(王兆國)가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사상정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당의 경제체제 개혁의 위대한 전략적 사실에 직접 관계되며,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도 관계된다’고 언급하여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0년 장쩌민(江澤民)은 제19차 전국통전공작회의(全國統戰工作會議)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유제 경제의 통전업무가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강한 성장’에 착안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최초로 ‘두 가지 건강’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陸聶海 2020). 西藏統一戰線, <http://www.xztzb.cn/ziliao/1558337134923.s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24) 广西統一戰線, https://www.gxtzb.cn/tzll/dyjt/202209/t20220930_13393.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25) 또한, 직후 발표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조례(시행)(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

경제가 건강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사영기업가들에 대한 정치사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풀이되는데(李小宁 2018), 사영기업가들의 ‘건강’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였으며, 사영기업가들의 건강한 발전은 당과 중앙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Dotson 2020).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에서 제시된 ‘두 가지 건강’은 사영분야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사상적 영도의 중요성과 사영기업가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결정>은 기업가정신의 발양(弘揚企業家精神)을 강조하였는데,²⁶⁾ 시진핑 시기 당국이 강조하는 기업가정신은 애국경업(愛國敬業)과 준법준수 및 고난 분투의 정신, 혁신발전과 품질집중 및 탁월성 추구의 정신, 책임이행과 과감한 감당(敢于担当) 및 사회봉사의 정신 등의 3가지 층위로 구분되며(周如冰 2019; 馮小荊 2019), 기업가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이익 실현의 측면뿐 아니라, 개별 기업과 기업가 개인의 이익을 국가이익, 민족이익, 사회이익과 결부시키는 맥락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李曉 2020). 더 나아가 2020년 기업가 좌담회(企業家座談會)에서 시진핑은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우수한 기업가는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숭고한 사명감과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의 발전을 국가의 번영, 민족의 흥성, 국민의 행복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주도적으로 국가를 위해 책임을 지고, 국가의 걱정을 분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⁷⁾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시기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조는 애국주의적 정서의 고취를 통해 사영기업가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순응을 강조하는 정치사상적 영향력 확대의 맥락을

條例(試行)>를 통해서 ‘두 가지 건강’은 사영분야 통일전선 업무의 주제로 공식 확립되었다(陸聶海 2020).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15-09/07/content_292586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广西統一戰線, https://www.gxtzb.cn/tzll/dytl/202209/t20220930_13393.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26) 당국은 2017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기업가정신 발양 및 더 나은 기업가 역할 발휘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營造企業家健康成長環境弘揚優秀企業家精神更好發揮企業家作用的意見)>을 통해 최초로 중앙 차원에서 최초로 기업가정신의 지위와 가치를 명시하였다(萬長松·王麗媛 2022). 당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조는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기업가정신의 자극과 보호(激發和保護企業家精神)로(孫桂生 外 2024), 20차 당대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의 발양으로 명시되어 되풀이되었다(歐陽志政·劉安爐 2023; 白靜 2023).

27) 新華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7/21/c_1126267575.htm. (2024년 8월 27일 검색)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결정>은 반부패적 맥락 속에서 정부 관료와 기업가 간의 청렴성과 동시에 긴밀한 관계의 형성을 중시한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親淸政商關係)’의 방침을 되풀이하여 사영기업과 지방 관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국의 영도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²⁸⁾ 그러나, 당국이 강조하는 정부 관료 개인과 기업가 개인 간의 친밀하고 청렴한 관계의 형성은 기층 차원에서 어려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²⁹⁾ 특히, 강도 높은 반부패의 압박 속에서 정부 관료의 복지부동이나 기업가의 어려움 외면(淸而不親), 일부 관료의 지대추구와 관상결탁 문제(親而不淸),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일처리가 달라지는 문제(不親不淸) 등의 난맥상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宮秀芬·孫愈 2023; 付翠蓮 2023). 최근 강도 높은 반부패적 정책의 강조 속에서 지방 관료들은 뇌물 수수나 불법적 토지 수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처의 확보나 사영 분야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노력 대신, 위협의 회피와 실수를 적발당하지 않고 안전을

28) 개혁기 중국의 지방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방 이익증가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고, 관료 개인 차원에서도 경제 성장을 통한 정치업적 및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도모하였다. 한편으로 사영기업가 입장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자원에 의존하였다(윤태희 2021a, 58-59; 張國淸 外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정부-기업가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패 방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何曉斌 外 2020).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기업가 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추진되었다(聶輝華 2020; 黃少卿 外 2018). 특히 시진핑은 2016년 3월 전국정협 12기 4차회의(全國政協十二屆四次會議)에서 최초로 신형(新型) 정부-기업가 관계를 친(親), 청(淸) 두 단어로 제시하였는데(潘玉娟, 2020; 付翠蓮 2023), 이는 간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청렴함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李其容 外 2024). 이러한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에 대한 방침은 19차 당대회에서 ‘친밀하고 청렴한 신형 정부-기업가 관계의 구성’으로 명시되었고(劉樹升 2019), 20차 당대회를 통해서도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의 전면 구성’ 등으로 제시되어 시진핑 시기 정부-기업가 관계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이해된다(姜輝·許如宝 2023).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16-03/04/content_5049192.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李其容 外 (2024), “‘求親且求淸’: 新型政商關係對連續創業的影響”, <https://link.cnki.net/urlid/42.1224.g3.20240402.1347.006>. (2024년 11월 6일 검색)

29) 騰訊网, <https://new.qq.com/rain/a/20240308A08AVY00>. (2024년 8월 7일 검색); 中國紀檢監察雜誌, https://zgjjc.ccdi.gov.cn/bqml/bqxx/202112/t20211201_255431.html. (2024년 8월 7일 검색)

추구하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⁰⁾ 이러한 지방 관료와의 소통과 교류의 어려움은 사영기업가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윤태희 2021b).

셋째, 사영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시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결정>은 사영기업의 거버넌스 구조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지지 및 인도하고, 기업의 준법 능력 강화와 부패 관련 위험 방지 능력 개선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진행적(ongoing) 및 사후적(ex post) 감시 강화와 사영기업에 대한 행정적 감찰의 규범화를 제시하였다.³¹⁾ Kennedy & Mazzocco(2023)에 따르면 시진핑 시기 사영기업에 대한 당국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개입은 당조직, 특수관리주(特殊管理股, special management share), 기업의 사회 신용체계(社會信用體系)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³²⁾ 먼저, 당조직을 통한 사영기업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가 존재한다. 시진핑 시기 조건을 갖춘 모든 사영기업에 당조직이 설립되었는데(조영남 2022), 이러한 사영분야 당조직은 사영기업가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 권한의 유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He & Liu 2022), 사영기업가들로 하여금 내키지 않는 당국의 정책에 따르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윤태희 2021a). 또한, 시진핑 시기 당국은 출판 매체, 인터넷 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 특수관리주를 도입하여 사영기업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검열하고,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최종 부결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사영기업의 거버넌스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³³⁾ 이를 통해 당국은 온라인 문학 영역의 여론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30) SCMP,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274741/no-bold-moves-chinas-anti-corruption-net-has-risk-averse-officials-afraid-innovate>. (2024년 8월 27일 검색)

31) <결정>의 영문은 이하를 참조. English.gov.cn, 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407/21/content_WS669d0255c6d0868f4e8e94f8.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32) Kennedy, S. and Mazzocco, I. (2023), "Can Chinese Firms Be Truly Private?", <https://bigdatachina.csis.org/can-chinese-firms-be-truly-private/>. (2024년 8월 24일 검색)

33) 2013년 18기 3중전회(十八屆三中全會)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혼합소유제로 전환된 이후의 중요 국유 미디어 기업의 특수관리주 제도 모색을 천명하였고, 2014년 <문화체제 개혁 심화 실시방안(深化文化体制改革實施方案)>을 통해 미디어 기업에서의 특수관리주 제도 시범적 시행의 방침을 천명하였다. 더 나아가 2015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을 통해 소수의 특정 영역에서의 국가 특수관리주 제도 건

관리와 문화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도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확보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검열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⁴⁾ 더 나아가, 당국은 사회 신용체계를 통해서 기업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³⁵⁾ 사회 신용체계를 통해 당국은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black list)를 작성하고,³⁶⁾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레드리

설 모색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5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은 회의를 통해 특별관리주의 1% 이상 소유권 보유, 이사진 참여, 콘텐츠에 대한 일정 검열 권한의 보유를 건의하였다. 한편으로 2017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網信辦)은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互聯網新聞信息服務管理規定)>을 통해 조건을 갖춘 온라인 뉴스 정보 제공자에게 특수관리주 제도의 시행을 천명하였다(叶春燕·王顏 2019). Sun, Y. (2024), “Golden shares Reimagined: Decoding China’s Special Management Shares”,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765649. (2024년 8월 20일 검색)

- 34) 예를 들어, 2017년 런민왕(人民網)은 베이징테세과기주식회사(北京鐵血科技股份有限公司)의 1.5% 주식을 인수하여 군사소셜 창작의 요람인 테세왕(鐵血網)의 총편집 임면과 내용 심사에 대한 ‘1표 부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韓天時 2021),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등에 대해서도 당국은 소수 지분의 매입을 통해 데이터 접근 권한의 확보 및 기업 경영 활동의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beijing-takes-golden-share-tencent-subsidiary-records-show-2023-10-19/>. (2024년 8월 20일 검색)
- 35) 1999년 중국은 최초의 신용 연구 과제인 ‘국가 신용관리 체계 건설 과제(建立國家信用管理体系課題)’를 전개하였고, 2003년 국무원은 약 5년의 시간을 통해 경제 발전과 상응하는 사회 신용체계 기본 프레임과 운영 기제의 기초적 건설을 천명하였다. 한편으로, 2011년 중국공산당 17기 6중전회(十七屆六中全會)를 통해 신용(誠信) 건설이 강조되었고, 2014년 6월에는 <국무원의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강요(2014-2020년)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2014-2020年)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사회 신용체계 건설의 총체적 프레임과 운영 방식이 제시되었다(陶云清·張金林 2023). 또한, 2022년에는 <사회 신용체계 건설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신발전 국면 형성의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社會信用體系建設高質量發展促進形成新發展格局的意見)>을 통해 사회 신용체계의 고품질 발전이 강조되었으며(陳杏頭·樓裕勝 2024), 2024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國家發展改革委辦公廳)은 <2024-2025년 사회 신용체계 건설 행동 계획(2024-2025年社會信用體系建設行動計劃)>을 발표하여 신용 건설 범치화 및 규범화 수준 향상, 신용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추진, 신용 정보 공유 응용의 강화, 신용 규제 효율의 향상, 중점 영역 신용 건설의 가속화 등을 천명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2015년과 2016년 43개 도시(구)의 사회 신용체계 건설 시범도시 선정과 2017년, 2019년, 2021년과 2023년 4차례에 걸친 사회 신용체계 건설 시범구 명단 발표 등을 통해 더 많은 도시의 시범구 형성 참여를 격려했다(于波·王威 2024).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6/content_6955501.htm. (2024년 8월 20일 검색)

스트(red list)를 작성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혹은 보상을 제공하는데(Trauth-Goik & Liu 2023; Jakob 2021),³⁷⁾ 이는 당국가에 대한 기업의 순응을 추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Lin et al.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에서 제시된 사영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방침은 당국의 사영기업에 대한 영향력 발휘의 강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20기3중전회의의 <결정>은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의 영도 강화의 방침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결정>은 ‘두 가지 건강’을 강조하여 공산당에 대한 사영기업가들의 건강한 발전, 즉 당과 중앙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강조하여 애국주의적 정서의 고취를 통한 사영기업가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순응을 강조하는 등 정치사정적 측면에서의 사영분야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방침을 내포하였다. 또한, <결정>은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의 방침을 강조하여 사영기업가와 지방 관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국가의 중요 원칙 제시와 영도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지방 관료와 사영기업가의 소통과 교류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사영기업가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결정>을 통해 사영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 확대 방침이 제시되었는데, 시진핑 시기 사영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당조직, 특수관리주, 사회 신용체계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영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방침은 당국의 사영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20기3중전회의의 <결정>을 통해 나타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 관련

36) 예를 들어 2022년 말까지 중국의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全國信用信息共享平台)은 46개 부처와 모든 성(구, 시)와 연결을 통해 1억 6,000만 개의 경영 주체의 730억 개에 달하는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 시스템(中國人民銀行徵信系統) 역시 11억 6,000만 명의 자연인과 1억 개의 기업 및 기타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한편, 4,000여 개의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세계 최대규모, 최대 인구의 포괄 및 신용 대출 정보 수집 종류가 가장 포괄적인 신용조회 시스템을 형성하였다(韓家平 2024).

37) 그 외 다음의 자료도 참고함. CRS Report (2020), “China’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342>. (2024년 8월 20일 검색) 2014년 발표된 <통지>는 정부, 상무(商務), 사회, 사법 영역의 신용(誠信) 건설을 강조하였는데, 상무 영역 신용 건설의 핵심 주체는 기업으로 풀이되었고(Zuo et al. 2023), 사회 신용 체계의 주요 대상 역시 기업으로 지적되었다(Drinhausen & Brussee 2021).

정책은 크게 보았을 때,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한편으로는 당국의 영도 강화라는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당국의 방침이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영도의 강화 중 어떠한 방향에 더욱 중점을 두어 집행이 될 것인지는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기3중전회의 폐막 이후 2024년 8월 중앙 전면심화 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第六次會議)에서 시진핑은 개혁의 전략적 중점과 우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혁 조치의 선후 순서, 흐름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개혁을 경제사회 발전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상징성 있는 개혁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도록 추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 중 어떠한 부분들에 더욱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추진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³⁸⁾

또한,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당국의 사영분야 관련 방침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향후 당국의 정책적 행보와 그에 따른 결과물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3년 18기3중전회를 통해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이 천명되었으나,³⁹⁾ 2014년에 ‘총체적 국가안전관’이 제시되어 ‘발전과 안보’ 간의 관계 재조정이 발생하는 한편,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 확대가 야기되었다(Drinhausen & Legarda 2022).⁴⁰⁾ 또한, 2021년 공동부유 재강조기를 거치면서 사영분야

38)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8/content_6971175.htm. (2024년 9월 7일 검색)

39) Thomas, N. (2024), “Politics First: The Key to Understanding China’s Third Plenum”,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politics-first-key-understanding-chinas-third-plenum>. (2024년 9월 7일 검색); Roach, S. S. (2024), “Don’t Be Fooled by China’s Third Plenum”,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hina-third-plenum-about-xi-jinping-governance-priorities-more-than-concrete-policies-by-stephen-s-roach-2024-07>. (2024년 7월 18일 검색); Lubin, D. (2024), “China’s third plenum - watch what they do, not what they say”, <https://www.chathamhouse.org/2024/07/chinas-third-plenum-watch-what-they-do-not-what-they-say>. (2024년 9월 7일 검색)

40) Huang, T. and Y. Tan (2024), “China’s upcoming party session is unlikely to reverse its economic troubles”,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4/chinas-upcoming-party-session-unlikely-reverse-its-economic-troubles>. (2024년

에 대한 일련의 규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영분야의 위축 현상과 당국에 대한 신뢰 약화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윤태희 2024; Pei 2024). 이러한 맥락에서 20기3중전회에서 강조된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영도의 방침이 향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20기3중전회를 통해서 사영분야에 대한 육성과 영도에 대한 강조가 같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추후 당국의 정책이 사영분야의 육성과 영도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전개가 진행될 것인가의 여부 등은 추후 사영분야의 발전적 흐름에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 풀이되며, 이에 대하여 향후 귀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개혁기 주요 3중전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영분야의 성장과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20기3중전회 역시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육성과 영도가 공존하는 흐름 속에서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흔들림 없음’에 대한 되풀이와 사영분야에 대한 공평한 대우 및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의 보호, 사영분야 발전에 양호한 환경 조성 및 기회 제공 등을 강조하여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이 강조되는 맥락 속에서 해당 영역에서의 사영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은 사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영도 또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기3중전회는 정치사상적 측면의 영도를 내포하는 ‘두 가지 건강’과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강조하였고, ‘친밀하고 청렴한 정부-기업가 관계’를 명시하여 지방 정부와 기업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당국의 영도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

7월 2일 검색)

한, 시진핑 시기 사영기업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당국의 개입이 당조직, 특수관리주, 사회 신용체계 등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기3중전회에서 사영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강조는 사영기업에 대한 당국가의 영향력 확대가 수반될 수 있음을 내포하였다. 이처럼 20기3중전회를 통해 나타난 사영분야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육성과 영도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육성과 영도 중 어느 부분이 더욱 중시될 것인가 그리고 20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방침이 향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전개될 수 있는가 등이 추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본문의 연구는 20기3중전회에서 나타난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사영분야의 발전 향배에 대한 모색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문의 연구는 기술과 설명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분석적인 맥락에서 시진핑 시기 사영분야에 대한 검토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박광득 (2008). “中國共產黨 제17기 3중전회와 農村改革.”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pp. 73-95.
- 서석홍 (1993). “1980년대 末 중국 私營經濟의 存在 實態에 관한 實證研究.” 『중소연구』. 통권 59호, pp. 177-220.
- _____ (2014).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18기 3중전회 <결정>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48집, pp. 257-284.
- 안치영 (2008).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기3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pp. 61-88.
- 여유경 (2014). “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내재된 제도적 제약: 영도소조, 혼합소유제, 정치화된 기업지배구조.”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2호, pp. 201-228.
- 윤태희 (2021a). 『공산당원이 된 중국 사영기업가들: 개혁기 중국의 국가-사영기업가 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 (2021b).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28권. 4호, pp. 5-37.
- _____ (2022). “시진핑 시기 공동부유 담론이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인터넷 플랫폼 영역의 사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00집, pp. 693-724.
- _____ (2023a). “시진핑 시기 부동산 영역의 정책에 대한 연구: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48호, pp. 17-49.
- _____ (2023b). “시진핑 시기 국유분야 약진의 사영분야 영향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30권. 제2호, pp. 5-37.
- _____ (2023c). “시진핑 시기 <쌍감(雙減)> 정책이 사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아태연구』. 제30권. 제4호, pp. 61-96.
- _____ (2024).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사영분야 정책에 관한 연구.” 『중국과 중국학』. 제52호, pp. 25-62.
- 이연단 (2014). “최근 중국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pp. 473-498.
- 이중화 (2009). “17기3중전회에 나타난 중국 삼농(三農)개혁의 변화와 의미.” 『사회과학연구』. 제17집. 제2호, pp. 166-192+355.
- 장윤미 (2020). “‘신시대’ 중국의 문화담론과 문화전략 분석.” 『중소연구』. 제44권. 제

1호, pp. 79-166.

조영남 (2022). 『중국의 통치 체제2: 공산당 통치 기제』. 21세기 북스.

최경식 (2015). “중국공산당 3중全会 성격 고찰: 11기 3중全会 이후 집단지도체제 교체의 3중全会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81호, pp. 177-205.

Blanchette, J. (2020). “From “China Inc.” to “CCP Inc.”: A New Paradigm for Chinese State Capitalism.”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66, pp. 1-13.

Bradford, A. (2023). *Digital Empires: The Global Battle to Regulate Techn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nny, M. (2020). “Private Sector Financial Conditions in China.” *RBA Bulletin*. September, pp. 91-99.

Dotson, John (2020). “The CCP’s New Directives for United Front Work in Private Enterprises.” *China Brief* Vol. 20. No. 17. September, pp. 1-6.

Drinhausen, K. and V. Brussee (2021). “China’s Social Credit System in 2021: From fragmentation towards integration.” *MERICCS China Monitor*. March 3, pp. 1-25.

Drinhausen, K. and H. Legarda (2022). “Confident Paranoia: Xi’s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shapes China’s behavior at home and abroad.” *MERICCS China Monitor*. September 15, pp. 1-23.

Grünberg, N. (2021). “Party-state capitalism under Xi: integrating political control and economic efficiency.” Nis Grünberg and Claudia Wessling (eds.). *The CCP’s Next Century: Expanding economic control, digital governance and national security*. Berlin: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pp. 19-36.

Guiheux, G. (2024).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hinese Bourgeoisie (1949-Present): From First Alliance to Repression and Contemporary Mutual Dependence.” Jérôme Doyon and Chloé Froissart (e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100-Year Trajectory*. Canberra: ANU Press, pp. 321-345.

He, X. and J. Liu (2022). “Between Legitimacy and Socioemotional Wealth: Family Ownership and the Party Branches Building of Chinese Enterprise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Vol. 18 No. 2, pp. 251-278.

Hou, Y. (2022).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Xi Era.” Jacques deLisle and Guobin Yang (eds.). *The Party Leads all: The Evolving Rol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hington,

-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211-236.
- Jakob, S. (2021). "The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 in Chian and its transnational impact." *Transnational Legal Theory*. Vol. 12. No. 2, pp. 294-314.
- Lin, L. Y. and C. J. Milhaupt (2023). "China'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 The Dwan of Surveillance State Capitalism?" *The China Quarterly*. Vol. 256, pp. 835-853.
- Livingston, S. (2021). "The New Challenge of Communist Corporate Governance." *CSIS Briefs*. January 2021, pp. 1-10.
- Pearson, M. M., M. Rithmire and K. S. Tsai (2024). "The Private Economy Under Party-State Capitalism." Stanley Rosen and Daniel C. Lynch (eds.). *Chinese Politics: The Xi Jinping Difference*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67-82.
- Pei, M. (2024). "Do Chinese Leaders and Elites Think Their Best Days Are Behind Them?" *China Leadership Monitor*. No. 81, pp. 1-12.
- Milhaupt, C. J. and W. Zheng (2015). "Beyond Ownership: State Capitalism and the Chinese Firm." *The Georgetown Law Journal*. Vol. 103, pp. 665-722.
- Naughton, B. and B. Boland (2023). *CCP Inc.: The Reshaping of China's State Capitalist System*.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Trauth-Goik, A. and C. Liu (2023). "Black or Fifty Shades of Grey? The Power and Limits of the Social Blacklist System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32 No. 144, pp. 1017-1033.
- Zuo, J., C. Huang, B. Qiu and R. Mai (2023). "The construction of social credit system and corporate innovation: Evidence from China."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Vol. 81, pp. 1-16.
- 葛鳴珏 (2014). "論黨的十八屆三中全會對非公有制經濟發展的新貢獻."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60-63.
- 江浩然 (2023). "發揮民營企業在科技自立自強中的更大作用." 『旗幟』. 第4期, pp. 31-32.
- 姜輝·許如寶 (2023). "全面構建親清政商關係的時代意義和實踐路徑."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40-43.
- 高尚全 (2013). 『改革只有進行時: 對3個三中全會改革決定的回顧』. 北京: 人民出版社.
- 高姣萍 (2024). "論中國式現代化與民營經濟的高質量發展." 『領導科學論壇』. 第4期, pp. 13-16.
- 歐陽志政·劉安爐 (2023). "新時代民營企業家精神的內涵特征及培育路徑." 『企業經濟』.

第42卷. 第12期, pp. 88-95.

宮秀芬·孫愈 (2023). “國家治理現代化視域下构建新型政商關係路徑選擇.” 『遼寧行政學院學報』. 第4期, pp. 11-15.

郭强 (2022). “社會主義基本經濟制度論——習近平關於馬克思主義政治經濟學的重大原創性貢獻.” 『科學社會主義』. 第3期, pp. 4-20.

郭倫德 (2023). “中國共產黨的民營經濟政策發展歷程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50-61.

郭朝先 (2008). “民營經濟發展30年.” 『經濟研究參考』. 第49期, pp. 45-53.

羅永寬·楊嬌 (2023). “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促進民營經濟高質量發展的重要論述.” 『上海經濟研究』. 第12期, pp. 5-15.

戴焰軍 (2019). “兩個“划時代會議”的重大意義.” 『前線』. 第3期, pp. 18-21.

陶云清·張金林 (2023). “社會信用、融資約束與企業金融化——來自“中國社會信用體系建設”的證據.” 『上海對外經貿大學學報』. 第30卷. 第2期, pp. 89-105.

董珊珊 (2014). “中國共產黨十八屆三中全會:新綱領、新突破、新紀元.” 『思想政治課教學』. 第1期, pp. 10-13.

梁雅楠·張成·王小广 (2024). “以新質生產力賦能民營企業轉型發展:困境、溯源和對策.” 『當代經濟管理』. 第46卷. 第12期, pp. 34-41.

劉樹升 (2019). “新時代企業家精神與親清新型政商關係研究.” 『云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21卷. 第4期, pp. 45-51.

陸聶海 (2020). “促進民營經濟“兩個健康”的統一戰線路徑.”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24-30.

李國强·李初 (2021). “創新制度, 民營經濟在黨的領導下不斷發展壯大.” 『智慧中國』. 第7期, pp. 16-21.

李連仲 (2014). “十八屆三中全會的決定與深化經濟體制改革的新突破.” 『對外經貿實務』. 第3期, pp. 4-7.

李曉 (2020). “新時代中國企業家精神:特点與培育.” 『人民論壇』. 第32期, pp. 52-55.

李小宁 (2018). “黨的十九大精神與新時代統一戰線——學習習近平總書記關於統一戰線的新思想新觀點新論斷新要求.”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5-11.

万長松·王麗媛 (2022). “新時代中國特色企業家精神的培育與弘揚.” 『長沙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7卷. 第1期, pp. 9-17.

毛三元 (1995). “私營經濟范疇的理論涵義與中國特色.” 『中南財經大學學報』. 第1期, pp. 40-43+65.

潘玉娟 (2020). “构建親清新型政商關係探究.” 『中共云南省委黨校學報』. 第21卷. 第3期, pp. 33-37.

- 白靜 (2023). “大政方針引領民營經濟走向廣闊舞台——十九大以來黨對民營經濟理論的創新發展.” 『中國科技產業』. 第8期, pp. 13-15.
- 保虎 (2024). “新質生產力賦能中國式現代化：理論邏輯、價值意蘊及實踐路徑.” 『西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pp. 113-122.
- 付翠蓮 (2023). “公權力監督視野下推動親清政商關係構建的邏輯與對策.” 『地方治理研究』. 第1期, pp. 2-11.
- 馮小茫 (2019). “企業家精神對改革開放以來民營經濟發展的影響研究.” 『商業流通』. 第19期, pp. 19-20.
- 徐亞娜 (2010). “建國以來非公有制經濟的發展歷程.” 『勝利油田黨校學報』. 第23卷. 第1期, pp. 45-48.
- 徐政·吳曉亮·鄭霖豪 (2024). “民營經濟推進中國式現代化：困境與路徑.” 『當代經濟管理』. 第46卷. 第4期, pp. 37-46.
- 石云鳴·姚桓 (2024). “黨領導民營經濟發展壯大的歷史脈絡和學理邏輯.” 『北京行政學院學報』. 第2期, pp. 43-54.
- 聶輝華 (2020). “從政企合謀到政企合作——一個初步的動態政企關係分析框架.” 『學術月刊』. 第52卷. 第6期, pp. 44-56.
- 孫桂生·唐少清·陶金元·嚴家明 (2024). “企業家精神、創新文化與高質量發展的內在邏輯分析.” 『中國軟科學』. 第S1期, pp. 454-461.
- 沈傳亮 (2019). “準確認識黨的十八屆三中全會的劃時代地位.” 『理論導報』. 第2期, pp. 9-10.
- 楊靜 (2024). ““兩個毫不動搖”的理論構建與現實推進——基於系統觀念的視角.” 『馬克思主義研究』. 第2期, pp. 83-95+156.
- 楊婷婷·李永山·李佳·邊海鵝·呂計權 (2020). “新時代非公有制企業黨建工作的挑戰與對策.” 『淮南師範學院學報』. 第2期, pp. 11-14.
- 叶春燕·王顏 (2019). “探索特殊管理股在傳媒融合發展中的應用.” 『城市黨報研究』. 第9期, pp. 91-93.
- 敖帶芽 (2005). 『私營企業主階層的政治參與』.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 隗斌賢 (2019). “新時代民營經濟“兩個健康”的理論與實踐探索.” 『治理研究』. 第2期, pp. 19-30.
- 吳振坤 (1999). “以十五大精神為指導 積極發展私營經濟.” 『長白學刊』. 第1期, pp. 7-12.
- 王昆 (2023). “新時代加強民營經濟統戰工作研究.” 『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36-40.
- 王懂棋·范雅康 (2020). “從嵌入到融合: 政黨中心視角下的非公黨建.” 『毛澤東思想研究』. 第37卷. 第4期, pp. 115-124

- 王松 (2024). “堅持“兩個毫不動搖”推動經濟高質量發展.”『紅旗文稿』, 第9期, pp. 30-33.
- 王拴乾 (2023). “完善市場經濟體制的創新性理論貢獻.”『新疆社會科學』, 第6期, pp. 1-6.
- 王靚·王正斌·徐建強 (2007). “我國個體經濟與經濟增長的實證研究.”『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pp. 87-89.
- 王俊 (2021). “民營經濟基本特征、制約因素以及優化發展路徑.”『經濟界』, 第2期, pp. 9-13.
- 王天義 (2020). “論堅持黨對民營企業的領導.”『山東社會科學』, 第10期, pp. 15-21.
- 王煥培 (2019). “習近平關於非公有製經濟領域“兩個健康”思想研究.”『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30-33.
- 王欣 (2022). “新時代推動民營企業高質量發展:制度演進、現實刻畫和未來進路.”『產業經濟評論』, 第4期, pp. 5-25.
- 于波·王威 (2024). “社會信用體系建設對城市經濟發展質量影響的統計檢驗.”『統計與決策』, 第14期, pp. 149-154.
- 熊輝·吳曉·譚詩杰 (2013). “改革開放以來黨關於私營經濟理論政策的演變.”『北京黨史』, 第1期, pp. 15-18.
- 袁莉 (2024). “新發展格局下我國民營經濟營商環境的優化策略.”『改革』, 第1期, pp. 111-120.
- 魏倩 (2023). “新時代民營經濟統戰工作的理論發展與實踐創新研究.”『成都行政學院學報』, 第2期, pp. 44-53+117-118.
- 張國清·馬麗·黃芳 (2016). “習近平“親清論”與建構新型政商關係.”『中共中央黨校學報』, 第20卷, 第5期, pp. 5-12.
- 張雷聲 (2022). “中國共產黨關於社會主義基本經濟制度的發展與創新.”『思想理論教育導刊』, 第7期, pp. 36-45.
- 張厚義·劉平青 (2003). “私營企業發展進入新的歷史階段.”『中國黨政幹部論壇』, 第11期, pp. 9-11.
- 鄭吉偉 (2024). “改革開放以來的三中全會:重大成就與歷史經驗.”『人民論壇』, 第10期, pp. 8-10.
- 鄭默杰 (2013). “激發非公有製經濟的活力和創造力.”『理論視野』, 第12期, pp. 30-32.
- 程霖·劉凝霜 (2017). “經濟增長、制度變遷與“民營經濟”概念的演生.”『學術月刊』, 第49卷, 第5期, pp. 59-73.
- 程名望·常臻 (2024). “民營經濟與新質生產力形成與發展:邏輯與對策.”『應用經濟學評論』, 第4卷, 第1期, pp. 51-58.
- 趙文強 (2021). 『中國民營經濟發展的制度變遷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 周文·李雪艷 (2024). “民營經濟高質量發展與新質生產力:關聯機理與互動路徑.”『河

- 北經貿大學學報』, 第45卷, 第2期, pp. 1-10.
- 周文·張奕涵 (2024). “民營經濟高質量發展的現實障礙与破解路徑.” 『西安財經大學學報』, 第37卷, 第2期, pp. 24-32.
- 周文·何雨晴 (2024). “新質生產力：中國式現代化的新動能与新路徑.” 『財經問題研究』, 第4期, pp. 3-15.
- 周如冰 (2019). “引導非公有制經濟人士 弘揚优秀企業家精神研究.” 『沈陽干部學刊』, 第21卷, 第2期, pp. 22-24.
- 周戎·雷江梅·陽小華 (2022). “習近平關於非公有制經濟重要論述的核心要義与時代价值.” 『江漢論壇』, 第12期, pp. 5-12.
- 曾憲奎 (2024). “新質生產力：內涵、時代价值、核心要素.” 『中國勞動關係學院學報』, 第38卷, 第3期, pp. 10-19.
- 陳曉莉·翟丰 (2023). “開啓民營經濟統戰工作高質量發展新征程.” 『群言』, 第8期, pp. 22-24.
- 陳陽 (2009). “改革開放以來中國共產黨對私營經濟的探索与認識.” 『中共合肥市委党校學報』, 第2期, pp. 48-51.
- 陳春花·尹俊 (2021). “新个体經濟新在何處.” 『人民論壇』, 第1期, pp. 19-23.
- 陳杏頭·樓裕胜 (2024). “社會信用體系建設高質量發展研究：文獻綜述.” 『商業經濟』, 第5期, pp. 124-128.
- 祝遠娟 (2014). “机遇和挑战：十八届三中全會与非公有制經濟發展.” 『广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25卷, 第1期, pp. 5-9.
- 彭藝璇 (2024). “習近平關於法治化營商环境重要論述的核心意涵和實踐進路.”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44卷, 第4期, pp. 161-169+222-223.
- 何曉斌·李强·黃送欽 (2020). “如何构建新時代的新型政商關係?——從新加坡政商關係實踐中得到的几点啓示.” 『經濟社會体制比較』, 第5期, pp. 121-131.
- 韓家平 (2024). “我國社會信用體系建設面臨的主要挑戰及對策建議.” 『征信』, 第2期, pp. 1-5.
- 韓天時 (2021). “論國家特殊管理股制度的构建.” 『現代商業』, 第11期, pp. 143-145.
- 許英杰·袁東明 (2024). “持續优化發展环境 激發民營經濟活力.” 『前線』, 第7期, pp. 35-38.
- 胡稅根·吳迨·弛李超 (2020). “我國优化營商环境政策研究.” 『領導科學論壇』, 第23期, pp. 31-42.
- 黃少卿·潘思怡·施浩 (2018). “反腐敗、政商關係轉型与企業績效.” 『學術月刊』, 第50卷, 第12期, pp. 25-40.

2. 기타

- CRS Report (2020). "China'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342>. (2024년 8월 20일 검색)
- English.gov.cn. https://english.www.gov.cn/policies/latestreleases/202407/21/content_WS669d0255c6d0868f4e8e94f8.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Huang, T. and Y. Tan (2024). "China's upcoming party session is unlikely to reverse its economic troubles."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4/chinas-upcoming-party-session-unlikely-reverse-its-economic-troubles>. (2024년 7월 2일 검색)
- Kennedy, S. and I. Mazzocco (2023). "Can Chinese Firms Be Truly Private?" <https://bigdatachina.csis.org/can-chinese-firms-be-truly-private/>. (2024년 8월 24일 검색)
- Lubin, D. (2024). "China's third plenum - watch what they do, not what they say." <https://www.chathamhouse.org/2024/07/chinas-third-plenum-watch-what-they-do-not-what-they-say>. (2024년 9월 7일 검색)
- Mueller, J., J. Wen and C. Wu (2023). "The Party and the Firm" https://www.hbs.edu/ris/Publication%20Files/2023.12.06.%20The_Party_and_the_Firm_5d1d06fd-dcb6-44e5-8ed8-4db24d7186c8.pdf. (2024년 9월 1일 검색)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beijing-takes-golden-share-tencent-subsidiary-records-show-2023-10-19/>. (2024년 8월 20일 검색)
- Roach, S. S. (2024). "Don't Be Fooled by China's Third Plenum."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hina-third-plenum-about-xi-jinping-governance-priorities-more-than-concrete-policies-by-stephen-s-roach-2024-07>. (2024년 7월 18일 검색)
- SCMP.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274741/no-bold-moves-chinas-anti-corruption-net-has-risk-averse-officials-afraid-innovate>. (2024년 8월 27일 검색)
- Thomas, N. (2024). "Politics First: The Key to Understanding China's Third Plenum."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politics-first-key-understanding-chinas-third-plenum>. (2024년 9월 7일 검색)
- 21經濟網.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224/herald/5e3bd0d77682027880776a9ed01977fc.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求是網. http://www.qstheory.cn/dukan/2020-06/04/c_1126073313.htm. (2024년 6월

- 26일 검색)
_____. http://www.qstheory.cn/dukan/qs/2024-05/31/c_1130154174.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光明网. https://theory.gmw.cn/2024-02/29/content_37173611.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广西統一戰線. https://www.gxtzb.cn/tzll/dylt/202209/t20220930_13393.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騰訊網. <https://new.qq.com/rain/a/20240308A08AVY00>. (2024년 8월 7일 검색)
- 李其容·王春森·馬源 (2024). ““求親且求清”:新型政商關係對連續創業的影響.” <https://link.cnki.net/urlid/42.1224.g3.20240402.1347.006>. (2024년 11월 6일 검색)
- 西藏統一戰線. <http://www.xztzb.cn/ziliao/1558337134923.s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搜狐網. https://news.sohu.com/a/832877582_796223. (2024년 12월 5일 검색)
-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01/c_1123649488.htm. (2024년 9월 3일 검색)
- _____.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7/21/c_1126267575.htm. (2024년 8월 27일 검색)
- _____.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1129417096.htm. (2024년 8월 7일 검색)
- 人民網. <http://politics.people.com.cn/n1/2023/12/12/c1024-40137394.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中國紀檢監察雜誌. https://zgjjc.ccdi.gov.cn/bqml/bqxx/202112/t20211201_255431.html. (2024년 8월 7일 검색)
- 中國社會科學網. https://www.cssn.cn/jjx/jjx_jjxp/202405/t20240514_5751063.shtml. (2024년 7월 24일 검색)
- 中國人大網. http://www.npc.gov.cn/c2/c30834/202406/t20240627_437798.html. (2024년 7월 25일 검색)
- 中國人民銀行. <http://www.pbc.gov.cn/zhengcehuobisi/125207/125227/125957/5347949/5347944/2024051109091110942.pdf>. (2024년 7월 24일 검색)
-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guoqing/2018-03/22/content_5276318.htm. (2024년 9월 3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29446.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7/content_6963773.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8/content_6971175.htm. (2024년 9월 7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xinwen/2015-09/07/content_292586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xinwen/2016-03/04/content_5049192.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zhengce/202307/content_6893055.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_____.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11/content_6917272.htm. (2024년 7월 24일 검색)
-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6/content_6955501.htm. (2024년 8월 20일 검색)
- 中華人民共和國司法部. https://www.moj.gov.cn/pub/sfbgw/lfyjzj/lflfyjzj/202410/t20241010_507325.html. (2024년 11월 7일 검색)
- 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 https://www.acfic.org.cn/fgzs/djh/202403/t20240319_200520.html. (2024년 8월 24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11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11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10일 |

| ABSTRACT |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Coexistence of Fostering and Guidance**

Taehee Yoon

(Chinese Language and Regional Studies Major, Sangmyung Univers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ies on the private sector, revealed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here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this article claim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the CCP demonstrated its intentions to foster the private sector. To be specific,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affirmed the principle of the 'two unswervings' to show their commitment to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it also claimed fair treat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for the private sector. Besid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declare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Besides, b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development and a new-quality productive forc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mplied that it would offer more space for the private sector in these areas to pursue growth.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Third Plenary Session also demonstrat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ntion for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and its continuous guidance over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In addi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laim for improving governance for private

enterprises suggested expanding the authorities' influence over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vealed its mixed signals, fostering and guidance, over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 Key words: China, Chinese Communist Party,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rivate Sector, State-Private Entrepreneur Relationship